

잡아함 123. 유신경

날짜: 12월 13th, 2024

출처: <http://www.dhamma.kr/wp/?p=17752>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마구라산에 계시었다. 때에 라다라는 시자 비구는 부처님께 나아가 그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한 쪽에 물러앉아 부처님께 여쭙었다.

“훌륭하신 세존이시여, 저를 위해 간략히 법의 요점을 말씀해 주소서. 저는 법을 듣고는 마땅히 한 고요한 곳에 가서 알뜰히 생각하여 방일하지 않겠나이다. 그 까닭은, 족성자들은 수염과 머리를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바른 믿음으로 집을 나와 집이 없이 도를 배우되, 정진을 더욱 더해 모든 범행을 닦고 법을 보아 스스로 알고 스스로 증득하여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서고, 할 일은 이미 마쳐 다시는 후생 몸을 받지 않을 줄을 스스로 아는데 있기 때문이옵니다.”

그 때에 세존께서는 라다에게 말씀하시었다.

“착하다! 라다여, 너는 능히 내 앞에서 그러한 뜻을 묻는구나.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라. 나는 너를 위해 설명하리라. 라다여, 너는 마땅히 <존재>의 몸과 그의 모임과 그의 멸함과 그의 멸하는 길의 자취를 알아야 하느니라. 어떤 것을 존재의 몸이라 하는가. 이른바 다섯 가지 쌓임이니, 물질의 쌓임과 느낌·생각·지어감·의식의 쌓임이니라. 어떤 것을 그의 모임이라 하는가. 이른바 미래의 존재에 대한 사랑과 탐욕과 기쁨이 함께 하여 이러저러한 곳을 사랑하고 즐겨하는 것이니 이것을 <존재>의 모임이라 하느니라. 어떤 것을 <존재>의 몸의 멸함이라 하는가. 이른바 미래의 <존재>에 대한 사랑과 기쁨이 함께 하여 이러저러한 곳을 사랑하고 즐겨하는 것을 남김없이 끊어 버리고 뺄어 다해서 욕심을 떠나 열반하는 것이니 이것을 <존재>의 몸의 다함이라 하느니라. 어떤 것을 <존재>의 몸을 멸하는 길의 자취라 하는가. 이른바 여덟 가지 바른 길이다. 즉 바른 소견·바른 뜻·바른 말·바른

업·바른 생활·바른 방편·바른 생각·바른 선정이니, 이것을 <존재>의 몸을 멸하는 길의 자취라 하느니라. 존재의 몸은 마땅히 알아야 하고 그의 모임은 마땅히 끊어야 하며, 그의 멸함은 증득하여야 하고 그것을 멸하는 길의 자취는 닦아야 하느니라.

라다여, 만일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이 <존재>의 몸을 알아서 끊고, 그의 모임을 알아서 끊으며, 그의 멸함을 알아서 증득하고, 그것을 멸하는 길의 자취를 알아서 닦으면 라다여, 그이는 사랑을 끊고 사랑을 떠났으며 맺음을 풀고 교만을 그쳐서 절대적 평등을 깨달아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니라.”

라다 비구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받들어 행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하고 물러갔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설법하시자 라다 비구는 혼자 고요한 곳에서 오로지 알뜰히 생각하였다. 그 까닭은 착한 남자는 수염과 머리를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바른 믿음으로 집을 나와 집이 없이 도를 배우되, 정진을 더욱 더 하여 모든 범행을 닦고 법을 보아, 스스로 알고 스스로 증득하여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서고, 할 일은 이미 마쳐 다시는 후세의 몸을 받지 않을 줄을 스스로 알고 아라한이 되어 마음이 잘 해탈하는데 있기 때문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이 경을 말씀하시자 라다 비구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받들어 행하였다.